

이재명 '본선직행' 이낙연 '역전발판'

'최대 승부처' 호남 경선...광주·전남 전략적 선택은

경선 후보들 잇단 방문...추석 민심 쟁탈전

정 전 총리 사퇴·지지세력 표심 향배 주목

더불어민주당의 '안방' 호남이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오는 25~26일 광주·전남과 전북 순회경선 결과에 따라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승기를 완전히 굳힐 수도 있고, 추격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추격의 발판을 놓을 수도 있어 대선 때마다 '전략적 선택'을 해온 호남 민심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정세균 전 총리의 중도 사퇴로 민주당 경선 레이스의 승부처로 좁히는 호남 순회 경선 판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2일까지 진행된 경선에서 이 지사가 누적 득표율 51.41%로 1위, 이 전 대표가 31.08%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이 지사가 네 차례의 순회 경선과 49만 여명 규모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모두 과반을 달성, 대세론에 탄력을 붙인 상태다. 다만 경선 첫 주 총청에서 54%대의 지

지를 받은 것과 달리 1차 선거인단 득표율은 51.09%로 소폭 하락했다. 과반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되는 것이 목표인 이 지사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결과다.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전 대표는 첫 주(28%)보다 오른 31.45%의 득표율로 반등에 성공했다.

첫째 주 패배 이후 내놓은 '의원직 사퇴' 승부수가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대역전극의 불씨를 살렸다는 것이 이 전 대표 측의 판단이지만 여전히 20% 포인트의 큰 표차이로 반전을 낙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 후보 모두 다음 경선지인 호남에서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 광주와 전남북을 합친 호남 권리당원 수는 20만명으로 서울(14만명), 경기(16만명)보다 많다.

중도 사퇴한 정 전 총리가 일단 후보단일화에 선을 그은 가운데 정 전 총리 지지세력 표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겉보기에 호남 민심은 아직 특정 후보에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지 않는 분위기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 6~7일 무등일보 의뢰로 광주·전남 성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차기 대권 적합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40.7%, 이 전 대표는 30.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조사한 결과에서는 광주·전남북 지지율이 이 지사 41.2%, 이 전 대표 29.8%로 나타났다.

모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밖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선 결과보다는 격차가 좁다.

호남 출신인 이 전 대표가 최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지지층 내 의견 교란이 활발해지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지사 측은 이 전 대표의 사퇴 카드가 호남 민심에 변화를 주겠지만, 대세에 영

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며 2주간 바닥 민심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호남은 본선 경쟁력을 보고 '이길만한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는 게 이 지사측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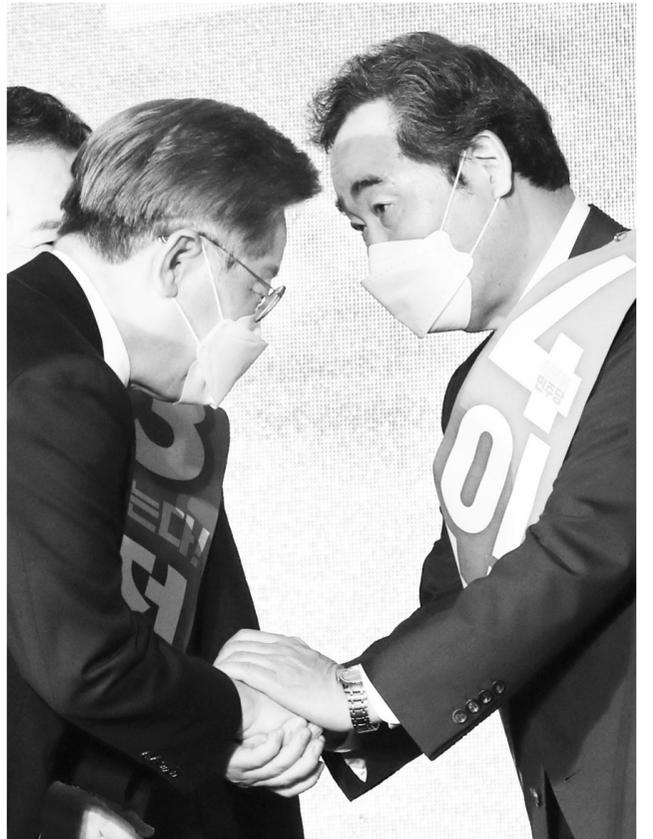
이 지사는 이날 직접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호남 공약을 발표하고, 주중과 연휴 중 연말야 호남을 방문한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우리에게 호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며 "호남에서 이 전 대표가 동정표로 5%포인트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 효과가 추석 연휴를 지나 2주간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호남에서 이미 초집전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이틀 향후 2차·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역전극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 캠프 전체에 사실상 총 동원령을 내려 호남 '다결기'에 나섰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민심은 (이 지사의) 과반이 꺾이고 있다고 본다"며 "서울 캠프의 필요 인력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직원, 봉사자 등을 전부 호남에 투입해 한 명 한 명 붙잡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지난 12일 오후 강원 원주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결과 발표를 들은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세론이나...야 주자들, 안방 경쟁 총력

바닥 여론전 가열...윤·홍·유 일제히 TK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가 시작된 13일 야권 주자들이 민심 총력전에 나섰다.

윤석열·홍준표·유승민 등 주요 주자들은 대구·경북(TK)으로 향했다. 책임당원 비율이 높아 '보수의 안방'으로 불리는 지역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

1차 컷오프 투표에는 당원 20%, 일반 시민 80%가 반영된다.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1차 컷오프에서 1위를 거머쥐면서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각오다. 그만큼 1위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리스크'를 부각하며 여론조사 상승세를 이어가던 홍 의원의 '무야홍(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바람'을 입증할지,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으나 '박지원 게이트'로 되치기에 나선 윤 전 총장이 1위를 지켜낼지가 관전 포인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을 시작으로 안동 당원협의회, 안동 신시장 등을 잇달아

찾는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1차 컷오프 결과가 중요하다. 처음에 기선 제압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쉽게 갈지, 긴장 속에서 갈 것인지 기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오전 9시~밤 10시 모르는 전화번호라도 꼭 받아서 윤석열을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에 있는 대구백화점 앞 공연장에서 '대구·경북 재도약 5대 비전'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SNS에서 "연일 발표되는 여론조사마다 끝은 크로스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밀리고 있다고 한다"며 "이제는 집토끼 마음 돌리기에 나서야겠다. TK 미래 100년 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날 오전 대구의 대표 시장 격인 서문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대구동산병원 등을 찾았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TK보다는 민심의 유동성이 상



공수처, 김용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김용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적으로 크다고 평가되는 부산·경남(PK)을 뺀다.

원 전 지사는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도당, 진주갑·을 당협위원회를 찾는다. 진주중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인다.

원희룡 캠프 총괄인 김용태 전 의원은 "이번에는 4위가 목표"라며 1차 컷오프 이후 열리는 토론을 통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진해가 고향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산을 찾아 유엔기념공원, 부전시장, 고 이태석 신부 생가 등을 방문한다.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의원은 "고향 PK에서 출발 의지를 다시 한번 호소하겠다"며 "컷오프 결과와 관계 없이 정권 교체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인천, 박진 의원은 전북 지역을 각각 찾는다. /연합뉴스

여, 국정원 개입설 차단 부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프레임 띄우기를 이어가면서 야권이 제기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 의혹 확산을 차단하는데 부심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가보안법 작 사건의 진상과는 무관한 공익신고자의 박지원 국정원장 식사 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 정치소설을 쓰고 있다"며 비난했다.

송 대표는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 대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구태정치"

라며 "(국민의힘이) 이 고발장을 손준성 이 작성했는지,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명확히 당무감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야말로 공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정원장을 끌어 들인 물타기는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고 가세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수사권으로 정치공작을 했는지, 야당과 공모했는지 여부"라며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사건을 막기 위해 폭로자를 공격했지만, 진실의 큰 물줄기를 바꾸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의혹' 윤희숙 사직안 국회 가결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사진)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25일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19일만이다.

여야는 윤 의원의 사직안 제출 당시 상대에 '공'을 넘기며 폭탄 돌리기를 했으나 결국 가결로 귀결됐다.

다.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이 상정되면 찬성표 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스팀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